

## 日本の 類型體質方劑와 四象醫學의 方劑原理에 對한 考察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 緒 論

張機는 漢代 三百餘年の 臨床實踐 經驗을 總結하고, 內經의 基本理論과 連繫를 시켜, 이를 充實하게 發展시켰으며, 或은 一部 不合理한 部分을 糾正함으로써 臨床應用에 더욱 중도록 해서 東洋醫學의 健全한 發展의 길을 열어 놓았다.<sup>8)</sup>

東醫들은 이 醫學書를 臨床의 規範의 書로 삼고, 그 書의 內容을 金科玉條로 여겨왔다.<sup>4)</sup>

漢方에는 이러한 張中景의 遺訓을 계승하는 古方學派와 晉, 唐, 宋, 元, 明, 淸의 醫術을 받드는 後世學派가 있다.<sup>6)</sup>

한편 四象醫學說은 李朝末葉 우리나라에서 提昌된 것으로 徹底하게 體質鑑別에 基礎하여 獨特한 醫學流波를 形成하고 있다.<sup>1)</sup>

日本에서는 矢數格의 著 一貫堂醫學書가 그의 師 森道伯(慶應 3年~昭和 6年)의 醫術을 祖述하여 모든 病을 三大病證으로 分類하고 人間の 體質도 이에 따라 三類型의 體質로 分類하고 各 病症의 主方을 立方하고 있다.<sup>4)</sup>

그것은, 곧 第一分類를 瘀血證體質者로 하고, 第二分類를 臟毒證體質者로 하고, 第三分類를 解毒證體質者로 한 것이다.<sup>3)</sup>

그 외에도 體質에 對한 概念은 여러 學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하고 있어서 現代醫學에서는 滲出體質, 過敏體質, 無力體質, 淋巴體質, 알레르기體質 등이 있다고 한다.<sup>10)</sup>

또한 日本의 馬場和光은 그의 著書 漢方治療法에서 傷寒論에 기초를 두고, 太陽病을 虛弱體質, 普通體質, 強壯體質, 最強壯體質로 나누고, 虛弱體質에는 葛根湯, 強壯體質에는 麻黃湯, 最強壯體質에는 大靑龍湯이라고<sup>4)</sup> 하였으나 이 體質들은 病的體質인데다 論理가 模糊 曖昧하며 粗漏不備點이 많아 臨床家의 關心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sup>4)</sup>

四象醫學은 이에 反하여 東醫臨床에 새로운 分野를 開拓한 것으로 原理, 生理, 病理, 體質鑑別, 診斷 및 四象體質에 맞는 藥物選擇, 治療, 方劑組成等 一切를 創道한 것이다.<sup>4)</sup>

疾病에서 西醫學的으로 病名이 같을지라도 甲에게 有效한 藥이 乙에게는 無效한 것이 바로 體質의 個人差에 起因하는 것이다.<sup>1)</sup> 故로 그 體質이 究明되어야만 各自의 體質에 적합한 治療나 強壯法을 施行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著者는 類體質概念의 定立 必要性을 느끼고 그 方法으로 體質方劑運用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說이란 본시 易理를 母體로 한 演繹的 假說에다가 漢代의 經驗的 傷寒論을 結付시켰고<sup>7)</sup>, 여러 類體質說中에서 특히 日本의 森道伯의 三類型體質說도 傷寒論의 學理를 母體로 하고 있으므로 本論文에서는 皇漢醫學書, 一貫堂醫學書, 東醫壽世保元을 中心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資 料

### 東醫壽世保元

①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에 發熱惡寒者는 卽少陰人의 腎受熱 表熱病也니 此證에 發熱惡寒而無汗者는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이오, 發熱惡寒而有汗者는 此는 亡陽初證也니 必不可輕易視之하고, 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하야 三日連服而 汗不止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이니라.

② 論曰此證에 其人이 如狂者는 腎陽이 因熱也오 小腹이 硬滿者는 大腸이 怕寒也라. 二證이 俱見이어든 當先其急이니 腎陽이 因熱則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으로 升補之하고 大腸이 怕寒則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으로 和解之하고, 若外熱이 包裹冷而毒氣重結於內하야 或將有養虎遺患之弊則 當用巴豆丹하야 下利一 二度에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으로써 和解而峻補之니라.

③ 張中景 所論 下焦血證은 卽 少陰人의 脾局陽氣가 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가 爲邪所拒하야 不能直升하고 連接於脾局하야 鬱縮膀胱之證也니라. 此證에 益氣而升陽則 得上策어니와 破血而解熱則出於下計니라.

④ 蓋少陰人病候는 自汗不出則 脾不弱也오 大便秘燥則 胃實也니 少陰人 太陽陽明病에 自汗不出脾不弱者는 輕病也라 大便秘이 雖硬이나 用藥則易愈也 故

로 大黃枳實厚朴芒硝之藥도 亦能成功於此時而劇者는 猶有半生半死라도 若用 八物君子湯 升陽益氣附子湯 與巴豆丹則 雖劇者라도 亦無脈弦者生 脈澁者死之理也리라. 又太陽病表證因在時에 何不早用溫補而升陽之藥 與巴豆하야 預圖其病 而必待陽明病 日晡發潮熱 狂言時 用承氣湯하야 使人半生半死耶아.

⑤ 論曰病發於陰而反下之云者는 病發於胃弱이니 當用 藿香正氣散而反用 大黃下之謂也라. 麻黃 大黃은 自是太陰人藥이오 非少陰人藥則 少陰人病에 無論表裡하고 麻黃 大黃은 汗下元非可論이라. 少陰人病에 下利清穀者는 積滯自解也니 太陰證下利清穀者는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하야 溫胃而降陰하고 少陰證下利清穀者는 當用 官桂附子理中湯하야 健脾而降陰이니라.

⑥ 論曰 常治 少陰人 直中陰經 乾霍亂關格之病하니 … 急用 巴豆如意丹한대 …… 此病이 在窮村故로 末暇溫胃和解之藥이라.

⑦ 論曰 發熱惡寒하며 脈浮緊하며 身痛不汗出而煩燥者는 卽 少陽人 脾受寒表寒病也니 此證에 不當用 大清龍湯이오, 當用荊防敗毒散이니라.

⑧ 論曰 張仲景 所論 少陽病에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脇脅滿 或往來寒熱之證은 卽 少陽人 腎局陰氣가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가 爲熱邪所壅하야 不能下降하야 連接於腎局而 凝聚腎間하야 膠固囚滯之病也라. 此證에 清裡熱而降表陰 則痰飲이 自散而 結胸之證도 預防不成也니라.

⑨ 少陽人이 平居에 表寒下多者 得病則必成亡陰也.

⑩ 少陽人이 胃受熱則 大便秘也오, 脾受寒則 泄瀉也니 故로 亡陰證泄瀉는 二三日而 大便秘하나니 一晝夜則 清陰이 將亡 而危境也오, 胃熱證은 大便秘三晝夜 不通而 汗出則 清陽이 將竭而 危境也니라.

⑪ 胃局清陽이 上升而 不快足於 頭面四肢則成上消病하고 大腸局清陽이 上升而 不快足於 胃局則 成中消病하니라.

⑫ 平心靜慮則 陽氣上升이 輕清하야 而充足於 頭面四肢也리니 此는 元氣也며 清陽也오, 勞心焦思則 陽氣下陷 重濁하야 而鬱熱於 頭面 四肢也리니 此는 火氣也며 耗陽也니라.

⑬ 論曰 上消中消는 裏陽升氣 雖則虛損이나 表陰降氣 猶待完壯故로 其病이 雖險이나 雖能歲月 支撐者 以此也로되 若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는 表裏陰陽이 俱爲虛損이니 所以爲病이 尤險하야 與下消로 略相輕重이니라.

⑭ 太陰人 傷寒表證에 寒厥四五日後 發熱者는 重證也니라

⑮ 太陰人病이 寒厥 六七日而 不發熱 不汗出則死也니 寒厥 二三日 發熱汗出則 輕證也오. 寒厥四五日而 發熱하고 得微汗於額上者를 此謂之 長感病이니 其病은 爲重證也니라. 此證은 原委 勞心焦思之餘에 胃脘이 衰弱而 表局이 虛薄하야 不勝寒而 外被寒邪 所圍하고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하나니…….

⑯ 嘗治 太陰人 胃脘表證癩病할때 有一太陰人이 素有怔忡 無汗 氣短 結咳矣리니 忽焉 又添出一 證하야 泄瀉 數十日不止하니 卽 表病之重證也니라.

⑰ 有一太陰人 素病이 咽嗌 乾燥而 面色이 靑白하며 表寒或泄하니 蓋咽 乾燥者는 肝熱也오. 面色이 靑白하며 表寒或泄者는 胃脘이 寒也니라

⑱ 朱肱이 曰 陽毒은 面赤斑如錦紋하고 咽喉痛하며 唾膿血이니 宜 葛根解肌湯 黑奴丸이니라. 論曰 右諸證에 當用 葛根解肌湯 黑奴丸이니라.

⑲ 論曰 右諸證에 增寒壯熱 燥澁者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이 赤腫者도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이오 體熱 腹滿 自利者 熱勝則 裏證也니 當用 葛根解肌湯이오.

⑳ 嘗治 太陰人 肝熱 熱證 癩病을 한데 有一太陰人이 素病이 數年來로 眠病이 時作時止矣하니 此人이 得癩病이어늘 自始發日로 用熱多寒少湯.

㉑ 論曰 太陰人 面色이 靑白者 多無燥證이오, 面色이 黃赤黑者는 多有燥證이니 蓋 肝熱肺燥而 然也.

㉒ 嘗治 太陰人 年 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 多大便秘할새 用 熱多寒少湯.

㉓ 此病은 非必不治之病也로되 此少年이 得病用藥 一週年後에 方死하니 蓋此原委는 侈藥이 無壓하고 慾火外馳하야 肝熱이 太盛하며 肺燥太枯 之故也.

㉔ 內經에 曰 尺脈이 緩溢을 謂之解休이라 하다. …… 論曰 此證은 卽 太陽人 腰脊病 太重證也니 必 戒深衰하고 遠嗔怒하며 修清淨然後에라야 其病이 可愈니 當用 五加皮壯脊湯

㉕ 朱震亨이 曰 噎膈反胃之病은 血液이 俱耗하야 胃脘이 乾枯하나니 …… 論曰 此證은 卽 太陽人小腸 病 重證也라 必遠嗔怒하고 斷厚味然後에 其病이 可愈니 此證에 當用 獼猴藤植腸湯.

一貫堂醫學書의 體質方劑

㉖ 瘀血證體質者

當歸尾 大黃 芒硝 3gr 枳實 厚朴 枳殼 陳皮 木通 紅花 蘇木 2gr

㉗ 臟毒證體質者

當歸 川芎 芍藥 防風 荊芥 薄荷 連交 麻黃 梔子 白朮 生薑 1.2gr 大黃 芒硝 1.5gr 石古 黃芩 桔梗 甘草 2.0gr 滑石 3.0gr

㉘ 解毒證體質者

〈柴胡清肝散〉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黃連 黃芩 黃栢 梔子 連交 甘草 桔梗 牛旁子 天花粉 薄荷 1.5gr 柴胡 0.5gr

〈荊芥連交湯〉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黃連 黃芩 黃栢 梔子 連交 甘草 荊芥 防風 薄荷 枳實 1.5gr 柴胡 桔梗 白芷 0.5

〈龍膽瀉肝湯〉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黃連 黃芩 黃栢 梔子 連交 甘草 薄荷 草龍膽 澤瀉 木通 車前子 防風 1.5gr

## 總括 및 考察

以上에서 提示된 資料에서 四象醫學의 方劑論 特性和 一貫堂醫學書의 三大體質의 方劑를 比較하여 살펴보고, 四象醫學에서 말하고 있는 太少陰陽人의 四體質 病理機轉과 日本의 體質醫學이라고 불리고 있는 森道伯이 提昌한 瘀血證體質, 臟毒證體質, 解毒證體質의 類型體質 方劑를 格義하며 要約考察해 보고자 한다.

東武 李濟馬는 1894年 東洋醫學分野의 새로운 學流를 이루는 四象醫學을 發表하면서 人間은 천부적으로 臟腑의 虛實이 固定되어 있으며 이는 性情(喜怒哀樂)에 依해 體質이 決定되었다는 體質生理를 提示했다.<sup>10)</sup> 資料(1, 5, 7, 10, 16, 17, 20)은 이러한 體質生理가 病理로 이어지는 病機를 說明한 것으로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表病證과 裏病證의 概念이다.

資料 24, 25는 太陽人의 外感腰脊病과 內觸 小腸病의 發顯證候와 治療를 爲한 方劑를 記述한 것이지만 治心의 方劑로 戒哀心, 遠嗔怒가 그들의 病證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한 특이점이라 思慮된다. 따라서 太陽人表病은 補肝清陰시키고, 太陽人裡病은 小腸의 吸聚之氣를 도와주는 것이<sup>9)</sup> 太陽人方劑運用的 原理라고 考察된다.

少陽人과 少陰人의 方劑運用的是 溫氣와 清氣로 要約되는 病證藥理가 적용되고 있다. 즉 資料(1)에서 腎受熱表熱病證에 升陽益氣附子湯類의 方劑로 亡陽證을 다스리면서 附子로 表陽溫氣를 도와주고 있고, 資料2에서 鬱狂證에 腎陽因熱을 도와 升陽益氣를 시키는 方劑原理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資料(8, 13)에서도 少陽人 表病과 少陽人裡病의 治療를 爲한 方劑運用的 清裡熱而降表陰시키는 原理와 清陽을 升氣시키고 裡陽清氣를 도와주어 裡熱을 풀어주고 있다.

少陰人의 下焦血證(資料3)에 益氣而升陽하는 上策을 쓰듯이 陰陽寒熱 升降原理로 少陰人裡病에서는

太陰證에 溫胃而降陰하고 少陰證에는 健脾而降陰시키는 方劑運用的 特성을 보이고 있다(資料 5).

資料(4, 6)은 溫氣와 清氣로 要約되는 病證藥理가 少陰人病候에서 溫補而升陽하고 溫胃和解之藥으로 方劑되어 治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資料(11, 12)는 少陽人 裡病에서 消渴病을 이루는 病機를 胃局清陽이 上升한 것으로 보고 輕清하기 위해 平心靜慮가 治病의 心理의 方劑임을 例示하고 있다.

資料(14~23)은 太陰人의 病證으로써 太陰人은 肺小한 연유로 相臟相腑가 되는 胃院이 上升力 부족으로 肺의 呼出力 不足時에는 寒邪에 觸感되어 胃院受寒表寒病이 이루어지고, 治病의 方劑原理로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기 위해 清肺潤燥升陽의 方劑가 必要한 것을 設하고 있다. 또한 肝受熱裡熱病은 太陰人은 肝大하므로 肝陰이 妄盛해지기 쉽고, 결국 肝鬱熱되어 發病한 것으로, 相腑인 小腸의 鬱滯熱을 풀어주면 肝燥熱證으로 起因하는 消渴, 虛勞夢泄, 手指焦黑癩瘡病 같은 燥症의 症狀群을 治할 수 있는 것으로 思慮했고, 方劑運用的 清肝解鬱과 解肌清熱시키는 葛根解肌湯類의 藥劑<sup>5)</sup>를 택하고 있다. 이처럼 四象說의 根幹은 四元構造로 形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모두 陰陽四象의 對待關係로 相應<sup>11)</sup>하고 있다.

반면에 資料(26)에 記在한 處方은 瘀血保持者 곧, 瘀血을 體內에 保有한 體質者를 主宰하는 處方으로 森道伯은 瘀血證體質(=通導散)證으로 說明하고 있다.<sup>3)</sup>

資料(27)에 提示된 處方은 現代의 卒中風性體質者를 包含하여 食毒, 風毒, 水毒, 梅毒의 四毒이 合成蓄積, 溜滯한 諸毒들을 臟毒證體質=防風通聖散證으로 表記하고 있다.<sup>3)</sup>

資料(28)에서 提示된 處方은 森道伯의 三大體質의 하나인 즉, 結核性體質者로 限定한 免疫性이 缺乏되어 있는 者들을 結核性體質者로 證候의 으로 擘

에서 解毒證體質=柴胡清肝散證, 荊芥連交湯證, 龍膽瀉肝湯證으로 말한 것이다.<sup>3)</sup>

考察하면 腸性自家中毒을 食毒이라 하고,<sup>6)</sup> 水泡性 結膜炎, 水泡性 角膜炎, 虫彩炎, 網膜炎, 弱視 등의 眼病, 頭痛, 耳鳴, 重聽, 眩暈, 震戰搐搦, 不眠, 神經衰弱, 히스테리, 神經病, 知覺과 運動의 麻痺等 五臟器腦脊髓症狀, 咳嗽, 呼吸促迫, 心悸亢進等 心肺症狀, 胃內停水, 惡心嘔吐, 水瀉性下痢等 胃腸症狀같은 것은 다른 原因에 由來한 것도 없지만, 그 대부분은 腎臟機能障礙의 結果인 尿性自家中毒 즉 水毒에 由來한다<sup>6)</sup> 皇漢醫學說과 腎臟의 排水障害로 因하여 身體의 細胞內에 液體의 過剩的 溜滯를 招來한 것이 水毒이며,<sup>3)</sup> 이것이 臟毒證體質者의 病因이라고 한 점은 서로 같다.

또한 “疾病의 殆半은 腸管의 排泄 障礙 즉, 食毒에 起因하거나 또 腎臟의 機能障礙 즉, 水毒에 起因하거나 또는 瘀血의 停滯 즉, 血毒에 起因하거나 또는 이들中 둘 내지 셋이 合併한데서 起因한 것이고, 이밖에 「原因」이라는 것은 모두 誘因이나 近因인데 不過한 것이니 만큼, 이 三因이 湧出하는 源泉인 臟器組織을 所臟하는 腹部는 百病의 根本이다”라고 하는 皇漢醫學說과 瘀血, 食毒, 水毒 등의 要素를 疾病의 內因으로 생각하고<sup>3)</sup> 三大證體質로 分類한 것이 서로 相關性이 있다고 考察된다.

結核性 毒을 治療하기 爲해 資料(28)에 제시된 處方은 解毒證體質이란 解毒劑 즉, 四物黃連解毒湯에 의하여 오직 治療를 擔當하는 體質을 말하고, 解毒이라는 말은 四物 黃連解毒湯의 解毒을 그대로 運用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sup>3)</sup>, 解毒證體質者가 갖고 있는 毒은 이때의 解毒劑에 依하여 解消되는 毒을 말하는 것<sup>3)</sup>으로 高찰된다.

## 結 論

以上の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傷寒論과 皇漢醫學書를 爲主로 하여 治方하는 日本 漢方醫界에서 森道伯이 提唱한 三大體質 概念은 先天的 體質이 아닌 後天的인 證의 개념으로 3個의 證狀群의 集合體였다.

2. 韓國의 李濟馬가 創始한 四象醫學의 四體質은 稟賦論의인 生來의 體質이며, 先天的 生理機能이 病理的 機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3. 四象醫學의 方劑運用 特徵은 四體質의 各病證이 稟賦에서 起因한 病證인 까닭에 治病은 곧, 各病機의 均衡을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爲해 陰陽寒熱升降原理를 이용하여 順逆證을 다스릴 수 있는 方劑를 澤하고 있었다.

## 參考文獻

1. 金腎劑 : 東洋醫學概要,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77 p.9,10.
2. 朴奭彥 :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서울, 1977, pp105-112, p140, pp208-209, pp246-258, pp287-335.
3. 矢數格 : 漢方一貫堂醫學書. 醫學研究社, 서울, 1983, p23,25,36,51,61,68,77,79
4.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한얼문고, 서울, 1974, p.76,82
5.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서울, 1972, p.76,82
6. 朱甲眞 : 皇漢醫學, 癸丑文化社, 서울, 1974, p.13,44
7. 洪淳用, 李乙活 : 四象醫學原論, 壽文社, 서울, 1973, p403

8.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 p.99

9. 宋一炳 : 四象醫學의 構造的 說明方法의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1979, p.12,24

10. 洪淳用 : 四象體質論, 대한한의학회지, 서울, 1982, p.66,69

11. 洪淳用 : 四象醫學의 基本原理, 東洋醫學, 서울, 1987, 6月 p.6